

마다가스카르 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놀까요?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일상에 맞추어 전래되고 있는 다양한 놀이를 즐깁니다. 최근에는 외래 문화가 유입되면서 마다가스카르 전통놀이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개발과 발달이 미치지 않은 오지나 시골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여전히 즐기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전통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바투

추바투는 우리나라의 공기놀이와 비슷한 놀이입니다. 사용하는 공깃돌의 개수는 4개에서 6개 정도로 지방마다 다릅니다. 공깃돌을 바닥에 던지고 첫 번째에는 공깃돌 하나씩, 두 번째에는 두 개씩 집어 올리는 게임으로 마지막에는 공깃돌을 던져서 손등 위에 올린 후 다시 던져 손으로 모두 쥐면 성공한 공깃돌 개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카시카시 카포카

'카시카시'는 '숨다', '카포카'는 '컵'을 뜻하는 말라가시어로 우리나라의 숨바꼭질과 유사한 놀이입니다. '부까'라고 불리는 술래가 눈을 가리고 열을 세는 동안 나머지는 술래가 있던 자리에 컵 한 개를 놓고 숨습니다. 술래가 숨은 아이들을 찾는 동안 숨어 있던 아이들은 술래 몰래 놓아둔 컵으로 바닥을 치면서 "카시카시 카포카"를 외칩니다. 숨어 있던 모든 아이들이 외칠 때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하면 술래는 계속 술래를 해야 하고, 술래가 숨어 있던 아이들을 모두 찾으면 가장 먼저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됩니다. 숨어 있던 사람이 카시카시 카포카를 외치려다가 술래에게 발견되어 이름이 불리면 그 사람이 다음 판 술래가 됩니다.



탄타라

탄타라는 인형이나 장난감 대신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여자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입니다. 작은 조약돌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들어 지어낸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 냅니다. 이 놀이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파누루나

파누루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하는 보드게임입니다. 체스판과 비슷하게 사각형 안에 사각형과 대각선을 그리고 교차하는 지점마다 각자의 조약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안에서 각자의 돌을 움직여 상대방의 돌을 모두 판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기게 됩니다.

알립니다!

- 1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편지는 2015년 2월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 2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정한 날 아동에게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야기

마다가스카르 사업장 소식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사업장 마눌루따나, 암바나뚜바나, 안자베뚜롱구, 이바투, 아이나 피티아바나

지난 4월 마다가스카르의 전 사업장에서는 결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연 1회 진행되는 건강 검진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모든 아이들의 키, 몸무게 등 기본적인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을 통해 눈, 귀, 코 및 소변검사 등의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 건강 검진을 통해 몇몇 아이들은 질병이나 몸의 이상을 발견해 약을 처방받거나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건강
검진

방과 후
수업



사업장 암바나뚜바나

마다가스카르는 한국과 달리 매년 학년 별로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이 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학습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유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업장에서는 아이들의 유급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영어, 불어, 수학, 과학 4가지 과목을 배우고 있으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점수가 오른 아이들은 선생님께 성적표를 자랑하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과 후 수업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 암바나뚜바나

암바나뚜바나 사업장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5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월 1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UGBM이라는 청년봉사자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은 매월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듣거나 게임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멘토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업, 진학상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서적 안정 및 진로 결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주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하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장 아이나 피티아바나

지난 4월 아이나 피티아바나 사업장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26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청소년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본 캠프는 여러 주제의 강의와 영화 상영, 요리 교실, 게임, 퀴즈, 장기자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아이들은 이번 캠프가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삶에 잘 적용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청소년
캠프



겨울 외투
지원



사업장 아이나 피티아바나

한국의 무더운 여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겨울은 한국의 늦가을 정도 기온으로 새벽에는 최저 5℃정도의 쌀쌀한 날씨에 이어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얇은 여름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은 회원님의 사랑이 담긴 점퍼를 선물로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멘트로 지어진 학교 건물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회원님의 선물 덕분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회원님! 항상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요즘 추운 겨울입니다. 아프리카의 겨울을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마다가스카르의 겨울 날씨는 한국의 쌀쌀한 가을 날씨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익숙한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지속되는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밍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우리 어린이들은 몸도 마음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노미화 행정간사 드림

COMING
SOON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 하계 특별 학교

2014년 8월, 안자베뚜롱구 사업장의 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성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

▶ 등록금 은행 운영

2014년 8~9월, 등록금 은행에 적금만 만료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각 아동의 학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40%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

▶ 하계 컴퓨터 교실 운영

2014년 8~9월, 마눌루따나 지역의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할 예정

▶ 학용품 지원

2014년 9월, 10월 개학을 맞이하여 각 학년별로 학용품 키트를 제작하여 지원할 예정